

하나금융투자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중국/신중국 기업분석 백승혜(02-3771-7521), 백지혜(7594), 송예지(8143), 한수진(8145)

▶ 금주 업데이트 종목

신동방, BYD, CATL,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중국연세, 텐센트 외 6

▶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수익률



▶ 포트폴리오별 수익률 현황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설정일자	주간수익률(%)	1개월 수익률(%)	연초 이후 수익률(%)	누적수익률(%)
중국 천하통일 1등주	2015.04	1.6	3.3	4.7	71.9
중국 신성장 1등주	2016.12	1.8	8.0	15.3	148.0
중국 1등주 (확장 포트폴리오)	2014.04	(1.7)	3.9	1.2	155.8

주: 천하통일 1등주 : 홍콩 및 중국본토에 상장된 중국 내수 대표기업으로 구성 중국 신성장 1등주 : 홍콩, 중국본토 및 미국 등 글로벌 증시에 상장된 중국 신성장산업 대표기업으로 구성

▶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종목별 수익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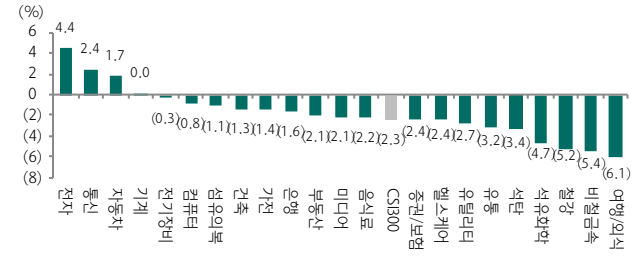
편입 종목	주간수익률 (%)	PER (배)	ROE (%)	매출액 증가율(YoY, %)		순이익 증가율(YoY, %)		EPS 성장률 (%)	EPS 변동률 (%p)	실적발표일
				2021E	2022E	2021E	2022E			
텐센트홀딩스 (0700.HK)	1.2	33.8	18.4	22.6	20.5	(4.8)	16.4	16.3	(0.0)	2021-08-12
알리바바 (BABA.US)	0.3	22.1	13.8	30.4	21.0	(11.2)	24.1	44.0	(0.6)	2021-08-20
바이두 (BIDU.US)	(0.7)	19.8	12.9	20.4	15.5	46.4	(37.0)	30.8	(0.2)	2021-08-13
징둥 (JD.US)	0.6	48.3	6.7	28.3	22.2	(77.8)	63.7	26.6	(6.0)	2021-08-17
메이판디엔펑 (3690.HK)	(2.1)	-	(15.3)	59.3	37.0	적전	흑전	1166.6	37.7	2021-08-16
신동방 (EDU.US)	(20.4)	26.0	13.9	17.3	31.1	3.1	57.2	7.2	0.4	2021-07-28
마오타이 (600519.CH)	(4.0)	48.8	28.9	13.5	15.2	15.3	17.3	15.3	(0.1)	2021-07-28
중국연세 (601888.CH)	(7.6)	49.7	37.3	53.7	37.8	84.7	34.7	84.1	0.0	2021-08-30
항서제약 (600276.CH)	(2.1)	60.0	21.5	26.9	20.1	23.4	22.0	19.8	0.0	2021-08-02
북성제약 (2196.HK)	(10.0)	27.0	10.8	24.0	21.9	20.0	19.4	56.8	0.0	2021-08-25
펑안헬스케어 (1833.HK)	(2.1)	-	(8.5)	31.2	32.7	적지	적지	-	0.0	2021-08-20
하이크비전 (002415.CH)	(3.3)	33.4	28.1	21.2	18.6	25.1	20.4	25.5	0.0	2021-07-26
하이얼스마트홈 (600690.CH)	(5.5)	19.4	16.5	11.4	9.4	40.5	21.6	24.8	0.0	2021-08-30
CATL (300750.CH)	(0.4)	111.0	13.5	82.5	41.8	70.4	43.0	64.5	0.0	2021-08-26
BYD (1211.HK)	8.4	111.3	7.7	25.3	20.5	11.6	41.5	6.0	0.0	2021-08-16
SMIC (0981.HK)	2.5	34.2	5.0	26.4	9.6	15.2	(23.5)	(16.4)	0.0	2021-08-06
GDS (GDS.US)	0.4	-	(2.3)	37.4	34.1	적지	적지	204.7	(14.7)	2021-08-18
금풍과기 (002202.CH)	(2.8)	12.3	10.3	(12.5)	8.8	19.5	5.7	20.9	0.0	2021-08-30
북방화창 (002371.CH)	18.9	165.0	11.0	39.5	33.4	46.5	39.6	44.3	(0.5)	2021-08-30
디세이 (002920.CH)	(4.6)	73.2	15.3	29.0	23.8	50.2	29.1	50.1	0.0	2021-08-13
강봉리튬 (01772.HK)	(1.6)	57.9	18.0	67.2	29.7	104.8	54.8	99.6	1.9	2021-08-26
다다넥서스 (DADA.US)	(4.4)	-	(25.9)	16.6	54.5	적지	적지	171.7	4.4	2021-08-24
통위 (600438.CH)	(4.0)	26.9	16.3	37.0	26.1	59.9	24.9	51.0	0.0	2021-08-09
평균	(1.9)	51.6	11.0	30.8	25.5	28.6	25.0	100.6	1.0	

주1: PER, ROE, EPS 성장률은 2020년 전망치 기준, EPS 변동률은 전주대비 기준, 홍콩상장 종목은 반기 및 연간 실적만 발표,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예상치

▶ 포트폴리오 단기 유망 종목

BYD, CATL, 다다넥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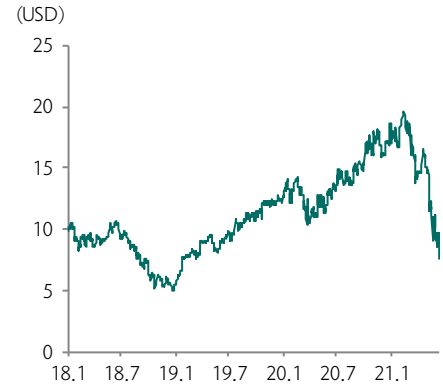
▶ 중국 A주 업종별 수익률



1) 신동방 모건스탠리 목표가 대폭 하향조정으로 주가 급락

상장 국가	6월 15일 교육부는 사교육 감독 사업부 설립 공시.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업계 관리, 및 사교육 업체 설립 지도, 사교육 업체 관리 정책 설정 등이 주요 업무 - 해당 사업부는 사교육(온오프라인 포함) 기업 설립, 교육 내용, 교육 시간, 직원 자격, 수업료 수취 등 관련으로 기준을 세우고 감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짐
미국	16일 Morgan Stanley에서 중국 교육 산업 전반 투자의견 "중립"으로 하향 조정. 사교육 업계 수업 시간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을 50%로 예상하며, 신동방(EDU.US), 호미래(TAL.US) 연간 매출액 최대 YoY -58% 감소 전망
섹터	주말,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 동안 매출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K9, K12 보충 수업을 하지 못할 확률 45%로 전망. K9과 K12 수업은 신동방 매출의 55%, 80% 차지, TAL 매출의 80%, 100% 차지
자유소비재	신동방 투자의견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목표가 20USD에서 8.6USD로 하향, 호미래 투자의견 "매수"에서 "매도"로 하향, 목표가 75USD에서 21.5USD로 하향, 이치교육(YQ.US) 투자의견 "매수"에서 "매도"로 하향, 목표가 17USD에서 3USD로 하향, 요우다우(DAO.US) 목표가 30USD에서 29USD로 하향
시가총액(조원)	- 전주 Citigroup에서는 호미래(TAL.US)와 고투(GOTU.US) 투자의견을 "매도"로 제시해 관련주 주가급락을 야기 16일 주가 신동방(EDU.US) -12.2%, 호미래(TAL.US) -16.9%, 가오투(GOTU.US) -12.5% 하락 마감 6월 18일 온라인에서는 신동방 수업 폐지 루머 확산, 루머에 따르면, 2022년부터 사교육 기업의 주말 및 방학 기간 동안 보충 수업 전면 폐지, 6세 이하 사교육 전면 폐지, 온라인 광고 제한 등이 실행될 가능성 있음. 이로 인해 신동방 매출의 70-80%가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 - 이에 신동방 창립자 위민홍은 개인 SNS에 위 내용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하는 글 게시
14.7	

최근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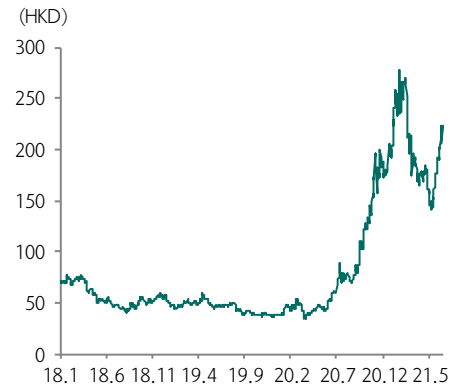


2) BYD

샤오미 자동차의 일부 프로젝트에 관해 협의 중

최근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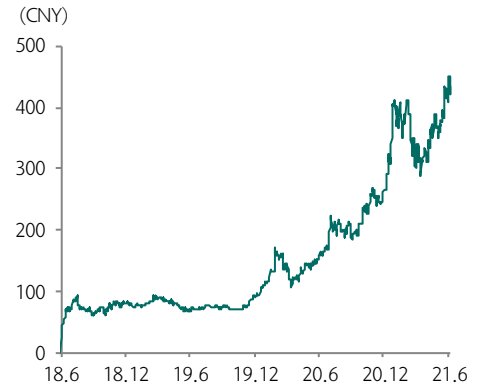
상장 국가	[샤오미 자동차의 일부 프로젝트에 관해 협의 중] • 지난 6/13, BYD 회장 왕찬푸는 6월 9일에 있었던 2021년 아부리 국가기업가 포럼에서 샤오미가 자동차를 제조하는 것은 3년의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던 것에 대해 해명 • BYD회장은 샤오미 스마트폰을 위탁 생산하는 등 이미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향후 샤오미 자동차 제조업에 있어서도 샤오미 자동차의 발전을 지원하며, BYD는 샤오미와 자동차 영역에서의 일부 프로젝트에 관해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힘
중국	
섹터	[BYD회장의 2021년 아부리 포럼 주요 발언 내용] • 최근 있었던 2021년 아부리 국가기업가 포럼에서, BYD 왕찬푸 회장은 LFP배터리가 비주류에서 돌아왔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최근 발표된 5월 EV배터리 생산량 중 삼원계 배터리가 총 생산량의 36%를 차지한 반면, LFP배터리의 생산량이 비중 64%를 기록하며 월간 생산량으로 처음 삼원계보다 많은 수치 기록 • 생산량의 증가는 시장의 수요 잠재력을 예고 • 또한 BYD 회장의 발언한 바에 의하면, BYD의 충칭 공장 배터리 생산능력은 이미 20GWh이며 연말에는 35GWh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자동차	• 올해 BYD는 창사 소재의 20GWh 블레이드 배터리 공장과 구이양 소재의 10GWh 블레이드 배터리 공장을 올해부터 준공에서 생산까지 점진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언급
시가총액(조원)	
113.2	[주주총회에서 BYD반도체 분할 상장 안건 결의] • 6/16 BYD는 전일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BYD 산하의 BYD반도체를 분사하여 창업판에 상장하는 안건이 결의됐다고 공시



3) CATL 테슬라 중국산 'Model Y'에 CATL의 LFP배터리 채용 이슈

상장 국가	[테슬라 중국산 'Model Y'에 CATL의 LFP배터리 채용 이슈] • 지난 6/11 중국 재정연합사에 따르면, 테슬라의 중국산 'Model Y'에 CATL의 LFP배터리가 탑재될 것이라고 밝힘 • CATL의 LFP배터리가 탑재된 'Model Y'는 7월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
중국	
섹터	[사천성 EV배터리 프로젝트 1기 정식 가동] • 6/17 중국 재정연합사에 따르면, 17일날 CATL 자회사인 사천시대신에너지의 EV배터리 프로젝트 1기가 정식으로 가동 • 작년 12/29, CATL은 사천성 EV배터리 Capa 증설에 100억위안 규모(Capa 약 33GWh 추정)를 투자한다고 공시한 바 있음. 해당 프로젝트는 2기에 나뉘져 가동될 예정
이차전지	
시가총액(조원)	[중국 에너지 엔지니어링과 MOU 체결] • 지난 6/15 CATL 위챗 공식계정에 따르면, CATL은 중앙국유기업인 중국 에너지 엔지니어링(3996.HK)과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 • 양사는 과학기술 R&D와 ESS 제품 합작, 에너지저장프로젝트 및 해외업무 확장 등에서 장기적인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수립
183.6	

최근 주가 추이



4) 이차전지

[중국 이차전지] 5월에도 세자리 수 고성장 지속

최근 주가 추이

상장 국가	2021년 5월 중국 EV배터리 탑재량(CABIA 기준)은 전년 기저와 견조한 전방산업 수요 확대에 YoY 178%, MoM 16% 증가한 9.8GWh를 기록 - 이 중 삼원계 배터리 탑재량은 5.2GWh(YoY +95%, MoM +1%)로 비중 54%(YoY -23%p, MoM -8%p)를 차지. LFP 배터리 탑재량은 YoY 459%, MoM 41% 증가한 4.5GWh로 비중 46%(YoY +23%p, MoM +8%p)를 기록
중국	- 올해 5월까지 중국 EV배터리 시장은 전년 대비 매월 세자리 수의 고성장을 지속했으며, 전년 상반기 기저와 견조한 수요가 시장 성장을 견인 5월 중국 EV배터리 시장 부동의 1위는 CATL로 4.3GWh(YoY +169%, MoM +12%)를 기록하며 월간 점유율 44%(YoY -2%p, MoM -1%p)를 차지
섹터	- 그 뒤를 이어 BYD 17%(YoY +6%p, MoM +3%p), LG에너지솔루션 13%(YoY +3%p, MoM +5%p)로 5월 중국 EV배터리 시장점유율 2, 3위를 기록 - 최근 중국 현지 매체에서 CATL의 LFP 배터리가 채용된 테슬라의 중국산 'Model Y'가 7월에 출시된다는 이슈가 있었음. 아직까지 양사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으나, 작년 4분기부터 CATL의 LFP배터리 탑재된 테슬라 중국산 'Model 3'가 판매가 됐듯이 중국산 'Model Y'에도 채용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
이차전지	- 또한 테슬라의 베를린 기가팩토리 생산 가동 시기가 연기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테슬라 중국산 'Model Y'도 유럽향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최근 테슬라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부정적 여론 확산이 하반기 테슬라 중국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상존하나, 테슬라 중국산 모델들의 유럽향 수출량 증가가 기대되는 만큼 CATL 역시 배터리 출하량 증가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
시가총액(조원)	- BYD(MoM +37%)와 LG에너지솔루션(MoM +87%)의 배터리 탑재량 MoM 증가세는 시장(MoM +16%) 대비 크게 아웃퍼폼 2위 BYD는 신차효과를 기반으로 5월 전기차 판매량이 MoM 26% 증가에 따라 EV배터리 탑재량도 MoM 37% 증가 3위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 중국산 'Model Y'의 5월 판매량이 MoM 135% 증가함에 따라 EV배터리 탑재량이 MoM 87%로 큰 폭 증가

5) 신재생에너지

발개위, 2021년 신재생에너지 온그리드프라이스 관련 정책 발표

최근 주가 추이

상장 국가

중국

섹터

전기설비

- 6/11 중국 발개위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온그리드프라이스 정책 관련 사항 통지〉를 발표하며, 2021년 풍력/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온그리드프라이스 정책을 명확히 함
- 이번 정책에서 언급된 풍력/태양광 보조금 중단 내용은 기존 정책에서 이미 확정된 사항이며, 2021년 풍력/태양광의 신규 프로젝트 온그리드프라이스를 화석에너지 발전 기준가에 따라 책정하라고 한 것에서 현재 그리드 패리티 시대로의 진입을 명확히 명시한 것
- 해당 정책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음
- 1) 2021년부터 신규로 등록되는 집중식 태양광 발전소와 상공업 분산식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및 육상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중앙정부 보조금 지원을 중단. 그리드 패리티를 실행
- 2) 2021년부터 신설되는 프로젝트의 온그리드프라이스는 현지 화석에너지 발전 기준가와 동일하게 책정. 신설 프로젝트는 친환경 전력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자율적인 거래 시장화 참여를 통해 온그리드프라이스를 형성할 수 있음
- 3) 2021년부터 신규 승인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태양열 프로젝트의 온그리드프라이스는 현지 성(省)급의 가격주관부처에서 책정. 조건을 갖춘 프로젝트는 경쟁성 배치 방식을 통해 형성할 수 있음. 온그리드프라이스가 현지 화석에너지 발전 기준가보다 높은 경우, 기준가 이내의 금액은 전력망 기업이 결산
- 4) 각 지방정부에서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장려하며, 태양광발전과 육상풍력, 해상풍력, 태양열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지원
- 발개위 책임자와 기자들의 질의 응답 내용은 하기와 같음
- Q: 2021년 온그리드프라이스 정책은 풍력/태양광 산업의 발전 가속화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 A: 2020년말까지 중국 풍력/태양광발전의 총 설치량은 5.3억KW로 지난 10년 전보다 18배 증가. 산업 기술 발전과 효율성 증가함에 따라 최근 몇년 동안 신규 태양광/풍력발전 프로젝트의 원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현재는 이미 그리드 패리티 조건을 갖추고 있음. 따라서 2021년부터 신규로 등록되는 집중식 태양광 발전소와 상공업 분산식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및 육상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중앙정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그리드 패리티를 실행할 것을 명시한 것임. 또한 산업 발전을 위해 2021년 신설 프로젝트는 경쟁 방식으로 구체적인 온그리드프라이스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현지 화석에너지 발전 기준가에 따라 책정하여 집행을 명시
- Q: 해당 정책에 따라 신설되는 풍력/태양광발전 프로젝트는 양호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 A: 2021년 온그리드프라이스 정책 제정을 연구할 때, 중요하게 고려한 측면 중 하나가 신설되는 풍력/태양광발전 프로젝트의 양호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이었음. 전력 가격신호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합리적인 투자 유도와

시가총액(조원)	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으로 산업의 질적 발전을 추진. 지역별 화석에너지 발전 기준가를 보면, 2021년 신설 태양광 프로젝트와 육상풍력발전 프로젝트의 수명주기 전국 평균 수익률은 양호한 수준에 있음. 자원 여건이 좋은 위치의 성(省)의 신설 프로젝트와 기술 및 효율이 좋은 신설프로젝트는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Q: 2021년 가정용 분산식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정책은 무엇인가 - A: 최근 중국 국가에너지국에서 발표한 <2021년 태양광/풍력발전 건설 관련 사항 통지>에서 2021년 신설 가정용 분산식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5억위안으로 이미 명확히 제시한 바 있음. 또한 세분화된 정책을 실행하여, 신설 가정용 분산식 태양광 프로젝트의 연간 전력망 연계 규모를 1,500만KW 이상 확보할 계획 - Q: 재정부가 2021년부터 신설되는 해상풍력과 태양열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이미 발표하였었는데, 2021년 해상풍력과 태양열발전의 온그리드프라이스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 A: 금번 발표한 정책에 명시되어 있듯이, 2021년부터 신규 승인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태양열 프로젝트의 온그리드프라이스는 현지 성(省)급의 가격주관부처에서 책정. 이러한 정책은 각 지역의 현지 자원 여건과 발전 계획, 지원 정책 등을 결합하여, 신설 해상풍력발전과 태양열발전 프로젝트의 온그리드프라이스 정책을 합리적으로 제정하는데 유리함. 또한 각 지방정부에서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장려
-----------------	---

6) 태양광	G7 공동성명에서 중국 신장 인권 존중 발표
상장 국가	G7 정상회의가 끝난 13일 공동 성명에서, 중국에 신장 인권 존중,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 허용 촉구 등의 내용을 발표
중국	G7 공동성명서 제29조에서 농업, 태양광, 의류 분야를 포함하여 글로벌 공급망에서 모든 형태의 강제 노역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강제 노역으로부터의 보호와 글로벌 공급망들이 강제 노역 사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각 국가 내에서의 가능한 방법 및 다국적 기관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
섹터	또한 G7 통상장관들은 올해 10월 G7 통상장관 회의 전에 글로벌 공급망 중 강제노역을 근절하기 위한 협력 강화와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해야 함
태양광	현재 중국의 폴리실리콘(2020년 글로벌 생산량의 67% 해당)과 웨이퍼(97%), 태양전지(79%), 모듈(71%) 등 태양광 업종은 글로벌 생산량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
시가총액(조원)	폴리실리콘 경우 생산능력 기준으로는 글로벌 생산능력의 85%가 중국에 위치해 있으며, 이 중 신장산이 중국 생산능력의 57%를 차지하고 있음(글로벌 생산능력의 약 48%가 신장에 위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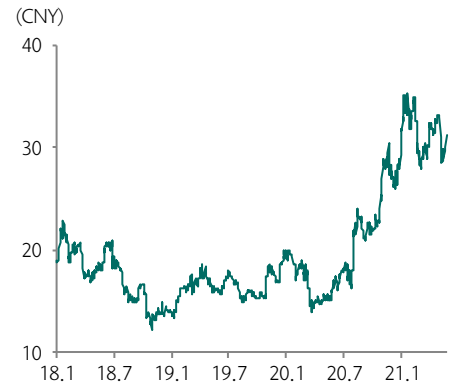
최근 주가 추이

7)중국면세

5월 중국 면세점 동향과 주가 전망

최근 주가 추이

상장 국가	5월 중국면세 시장점유율 91% 기록 21년 4, 5월 해남도 면세 매출액은 YoY +260% 증가했고, 19년 같은 기간 면세점 매출의 6.2배, 20년 동기간 매출의 3.6배 수준으로 확대됨. 중국면세의 매출액은 49억위안으로 MoM +5.5% 증가해 해남도 매출액의 91.3%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됨. 중국면세의 해남도 매출비중은 4월(93.2%) 대비 1.9%p 하락했으나, 여전히 90%대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중국	신규 면세 정책이 실행된 20년 7월부터 21년 5월까지 해남도 지역 면세점 월평균 매출액은 39억위안으로, 19년 1월부터 20년 6월까지 월평균 매출액인 12억위안보다 3배 이상 증가함. 4~5월 해남도 면세점 이용객수도 YoY 605% 급증하며, 춘절 연휴 시즌인 2월 성장률을 상회함
섹터	- 중국에서도 루이비통 시내 면세점 철수, 공항 면세점 중심 고급화 전략 구사 계획 - 루이비통은 한국 시내 면세점에서 철수하기로 결정을 내림. 이는 중국 다이공이 국내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루이비통을 구매해 중국에서 불법 유통을 하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으로 추측됨 - 루이비통은 중국에서도 같은 전략을 제시함. 루이비통은 중국 시내 면세점 매장을 철수하고 중국 공항 면세점에만 입점해 고급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됨. 루이비통은 22년까지 중국면세가 운영중인 중국 베이징 수도공항, 베이징 대흥공항, 상하이 홍교 공항, 홍콩 국제공항을 포함한 6개 공항에 매장을 오픈할 계획
자유소비재	21년 홍콩 IPO 최대 규모, 상승 여력 충분한 주가 - 중국면세는 H주 공모 자금을 통해 해남도와 공항 면세 사업 성장성을 강화하고, 하이엔드 브랜드 공급망 강화, M&A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시가총액(조원)	중국면세 주가는 현재 12MF PER 53.7배에서 거래 중. 20년(89.8배)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해소된 상태이며, 내년도 해남도 면세 성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주가로 판단됨. 높아진 밸류에이션 매력과 향후 성장성을 감안하면 투자 매력은 여전히 높음
98.3	6월 단오절 여행인구/여행소비는 각각 2019년 대비 93%/75%로 예상치 하회. 5월 노동절 여행인구/여행소비는 각각 2019년 대비 118%/96% 회복. 단오절 회복률은 노동절 회복률보다 낮으나, 회복률 차이는 22%에서 18%로 좁혀짐. 중국 5월 산업생산 YoY +8.8%, 소매판매 YoY +12.4%로 예상치 하회해 중국 증시 전반에 악재로 작용 중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8) 텐센트 5월 글로벌 App store, Google Play 모바일 게임 부문 매출 1위 기록

상장 국가	홍콩
섹터	IT
시가총액(조원)	842.1

- Sensor Tower 앱 데이터 공유 플랫폼 데이터에 의하면, 2021년 5월 App store, Google Play 모바일 게임 부문에서 텐센트의 <왕자영요>가 매출액 2.64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왕자영요>의 매출 중 중국 App Store 매출 비중이 95%이며, 중국 대만 버전과 태국 버전이 각각 2%, 1.7% 차지
- 한편, 텐센트의 <화평정영>과 <PUBG Mobile>은 2.58억 달러의 매출로 2위를 기록

최근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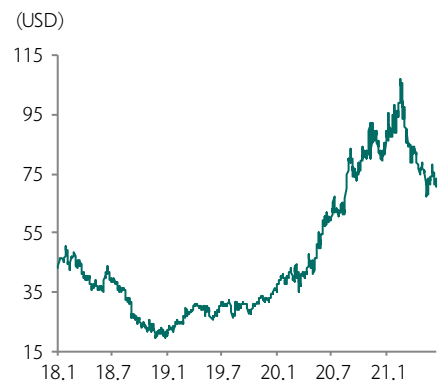


9) 징둥 618 쇼핑데이 당일 매출액 3자릿수 성장을 기록 예상

상장 국가	미국
섹터	자유소비재
시가총액(조원)	126.2

- 징둥은 618 쇼핑데이 시즌에 온오프라인 소비 활성화 시그널을 보이면서 행사 당일에도 각 품목별 매출액이 3자릿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또한, 618 쇼핑데이 기간 내 O2O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징둥따오지아 사용량 증가로 두 플랫폼 시너지 효과도 부각됨
- 618 첫날(1일) 60% 이상 온라인 가맹점 거래액이 YoY 100%이상 증가했고, 전체 품목 중 (게임용)스마트폰과 가전제품 판매액이 각각 8배, 10배 증가해 성장폭이 가장 뚜렷. 또한, 징둥따오지아의 저선급 사용자 비중이 26% 개선돼 GMV는 YoY 140% 이상의 성장을 시현. 저선도시 침투율 향상 외에도 징둥따오지아는 '당일배송' 서비스에서 시간을 더 단축해 '시간 내 배송'으로 전년대비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판단
- 지난 10일, 다다넥서스와 함께 발표한 <2021년 즉시소비(Immediate Consumption)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징둥따오지아는 현재 1,500개 도시를 커버하고 있고 이는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 징둥은 신선식품, 공구 사업부문에서 후발자로 꼽히지만 자체 물류 경쟁력을 선발자 우위로 삼아 O2O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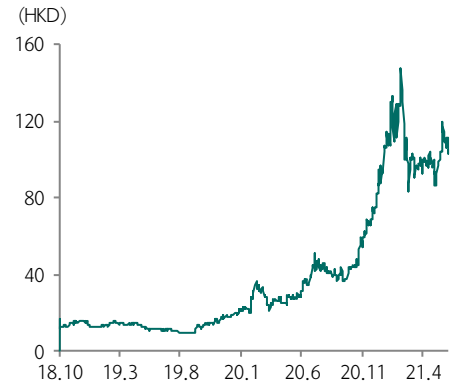


중국 1등주 포트폴리오

10) 강봉리튬 Goulamina 1기의 리튬정광 생산능력 50% 총판권 획득 예정

상장 국가	6/14 공시에 따르면, 강봉리튬 이사회는 자회사 강봉국제가 1.3억달러에 네덜란드 SPV의 지분 50%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
중국	해당 거래가 완료된 후, 강봉국제는 네덜란드 SPV의 자회사인 LMSA(Lithium du Mali SA)에 4천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무적인 지원을 하여 말리 소재의 Goulamina 리튬 정광 프로젝트 건설 개발을 촉진할 계획
섹터	투자자 완료되면, 강봉국제는 Goulamina 프로젝트 1기의 연간 생산능력 약 45.5만톤 리튬정광의 50% 총판권을 획득할 예정
이차전지	만약 강봉국제가 직접 재무지원을 해주거나 LMSA가 제3자 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면, 해당 프로젝트 1기의 남은 생산능력 50%의 총판권도 획득할 수 있음
시가총액(조원)	
28.0	

최근 주가 추이



11)하이얼스마트홈 J.P.Morgan 지분 6.95%에서 7.04%까지 확대

상장 국가	J.P.Morgan은 6월 11일 하이얼스마트홈 지분 확대 6.95%에서 7.04%까지 확대. 6월 11일 1주당 30/1HKD로 399.9만주 매수(약 1.21억HKD에 해당)
중국	하이얼스마트홈은 6월 16일 자사주 H주 877.2만주 소각, H주 190만주 매입(5627.8만HKD), A주 80만주 (2140.6만위안) 매입
섹터	소상품시티(600415.CH)는 6월 15일 4.49억위안에 하이얼인티넷테크 지분 100% 인수 공시. 하이얼인티넷테크는 2012년 7월 설립되었고, 2020년 연초 매출액은 9216만위안, 순손실 1417만위안 기록, 온라인 결제 서비스인 콰이제통이 주 매출원. 콰이제통은 2013년 온라인 결제 허가를 획득한 바 있음. 소상품시티는 콰이제통을 chinagoods 플랫폼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에 활용할 것으로 파악됨.
자유소비재	
시가총액(조원)	
41.2	

최근 주가 추이



12) 복성제약 8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생산라인 가동 예정

상장 국가	5월 9일 복성제약이 BioNTech과 mRNA 백신 기술이전 생산 합자회사 설립 발표. 6월 11일 주주총회에서 BioNTech 백신 허가 관련 심사는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힘. 또한, 코로나19 백신 기술 전이 준비 및 설비 구매 준비 단계에 돌입했으며, 6월 중으로 백신 생산 합의 체결되며, 8월부터 정식 생산라인 가동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힘
홍콩	
섹터	복성제약은 CAR-T세포 치료제품인 Yescarta의 호지킨림프암에 대한 임상실험 허가 공시. Yescarta는 미국 제약사 Kite Pharma에서 개발한 CD19 CAR-T세포 주사액으로 알려져있으며, 현재 기술 이전을 통해 중국 로컬 생산에 돌입함. 2018년 8월 해당 약물의 복발난치성 대B세포림프종 적응증에 대한 허가 획득. Yescarta와 동일한 치료제인 Kymriah, Tecartus의 2020년 글로벌 매출액은 각각 5.6억달러, 4.7억달러, 0.4억 달러로 집계됨. 2021년 5월 해당 약물에 대한 누적 연구 개발비는 6.8억위안.
헬스케어	CXCR4 길항제인 발릭사포타이드(Balixafortide)과 에리불린(Eribulin) 병용 치료의 유방암 적응증에 대한 임상 실험 허가 획득 공시
시가총액(조원)	해당 약물은 유방암 적응증에 대해 미국 FDA의 Fast Track 의약품에 지정된 바 있음
26.5	6월 16일 대만 방역당국은 브리핑에서 복성제약이 대만의 백신 확보에 간섭이 없길 바란다고 발언. 복성제약과 대만 정부는 여전히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 복성제약은 이미 전월 주주총회에서 대만에 BioNTech 백신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의향이 있으며, 대만의 모든 민간 기관 또는 정부 기관은 복성제약을 통해서만 BioNTech 백신을 공급 받아야한다고 밝힌 바 있음

최근 주가 추이



13) 의약품 섹터 신약 출시 가속화, 의약품 집중구매 가격 단속

상장 국가	6월 15일 국가의료보장국에서는 <의료보장법> 의견 수렴안 공시
-	1) 의약품 집중 구매에 참가하는 기업은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합리적인 가격 제시해야함, 생산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 등록 불가
섹터	2) 의료보장 행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 소재의 원가 가격 조사를 진행해 의약품 가격 및 입찰 신용 평가 제도 도입할 것. 이를 통해 약품 가격 담합 및 지나친 인상 제재. 불공정한 시장 경쟁 단속할 예정
헬스케어	6월 9일 국가의료보장국에서는 <2021년 국가 의료보험 약품 목록 조정 방안> 공시, 이를 통해 신약 출시 가속화될것으로 전망. 2016년1월부터 2021년 6월 30일 기간 동안의 국가 의약품 감독부에서 출시를 허가한 약품은 모두 신청 대상
시가총액(조원)	- 현재 중국 의료 보험 목록은 "동태조정기질" 을 사용하는데, - 임상에서 뛰어난 효과가 검증된 약품은 더욱 빠르게 목록에 편입되고, 보조제 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약품은 목록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이를 통해 신약 출시를 가속화하고, 신약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며, 항서제약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주가 추이

14) 전기차

중국자동차협회, 전기차 목표치 상향 조정

최근 주가 추이

상장 국가	6/18 중국자동차협회(CAAM)은 2021년 중국 자동차 전체 시장은 기존 4% 성장에서 상향된 성장률 6.5%를 예상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 중 NEV(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은 200만대 이상(기존 전망치 180만대에서 11% 상향 조정)을 전망 - 또한 향후 5년간 중국 NEV 판매 성장률 40% 이상 전망. 이는 기존 CAGR 35%에서 상향된 수치
중국	2025년 전기차 침투율 예상치를 20%-25%로 전망하였으며, 기존 중국 정부 전기차 침투율 목표치인 20%를 초과 달성 예정 - 중국자동차협회는 2021년 자동차 판매량 목표치 개정안을 7월에 정식으로 발표할 계획
섹터	- 또한 동일(6/18) 2021년 중국자동차포럼에서 중국 전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자 중국과학기술협회 주석인 완강은 2021년 5월말까지 중국 NEV(신에너지 자동차) 보유량은 580만대로 글로벌 전체의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발전 추세는 양호하다고 발표 - 또한 중국 NEV(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전략적 포지셔닝 및 지원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기
자동차	- 완강이 건의한 내용으로는 1)유관부처들의 "포스트 보조금 시대" 지원 정책의 빠른 제정, 2)NEV 구매세 감면 정책 연장, 3)버스와 물류, 택시 등 공공 서비스에 NEV 사용과 충전, 수소 등 인프라에 대한 재정 지원 유지 등이 있음 - 또한 수소와 전기의 시너지로 자동차의 전기 구동 변혁 추진을 공동으로 지원해야 한다고도 건의
시가총액(조원)	- 수소 에너지는 다양화된 공급원과 구동 고효율, 차량 운행 탄소 제로 등의 특징이 있어, 장거리 버스과 중대형 상용차, 물류차에 연료전지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수소에너지를 국가에너지 전략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힘. 국가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계획을 제정하여 부수적인 표준 법규와 지원 정책을 완비해야 한다고도 언급 - 완강은 중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개발에 집중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었으며, 현재 중국 전기차 시장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쳐 중국 전기차 산업의 아버지라고도 평가 받음
-	6/18 자동차 섹터 +5.82%, BYD H/A주 +4.22%/+5.56%, 장안자동차 +9.93%, 장성자동차 H/A주 +6.85%/+6.92% 등 전반적으로 강세 마감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1년 06월 22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백승혜)는 2021년 06월 22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 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리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 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 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